

## 방통위, 재난상황 대비 주요 통신시설 현장방문

- 이상인 상임위원, 엘지유플러스 인터넷데이터센터(IDC) 방문 -

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상임위원은 28일(금) 엘지유플러스(LGU+)의 인터넷 데이터센터\*(IDC) 중 하나인 평촌메가센터를 방문하여 수해·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계획을 점검하였다. 인터넷데이터센터는 침수·정전 발생 시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클 수밖에 없는 중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다.

\* 인터넷 연결의 핵심이 되는 서버 컴퓨터와 네트워크 회선을 한 데 모아서 집중시킨 시설

평촌메가센터는 수도권 중심부에 위치하여 강남·판교·가산에 기반을 둔 인터넷·금융 기업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2015년 설립된 이래 급증하는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고자 올해 3분기 제2센터 완공을 앞두고 있다.

이상인 상임위원은 이날 현장에서 “침수·화재·지진·정전 등으로 인한 데이터센터 장애 시 메신저·쇼핑·금융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발생한다”며 “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난 대비 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 끝.

담당 부서	이용자정책국	책임자	과 장	신영규 (02-2110-1510)
	이용자정책총괄과	담당자	사무관	이기훈 (02-2110-1511)